

# 업무 시간 훔치는 도둑

## 정보교환 등 유용한 기능도

글 / 백승오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몰고 온 영향은 매우 크다. 우선 직장의 업무 풍속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PC는 주로 문서작업 및 데이터 저장 기능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PC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같았으면 외근을 나가야만 하는 업무인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굳이 외근을 나가야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이 업무시간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다. 플래시로 제작된 각종 만화나 동영상 등이 업무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인터넷 서핑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전해지기도 한다.

그 중 업무시간을 가장 많이 훔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인스턴트 메신저는 정보교환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필자가 보고 듣고 한 바로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루종일(출근해서 퇴근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집에서) 메신저를 띄워놓고 업무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보아왔다. 물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있으나 대개가 개인적인 잡담 형식이다. 그 사람은 급여의 일정 정도는 회사에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격을 받을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메신저 사용하지 않나요?’

나의 대답은 이렇다.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필자도 메신저를 사용해본 경험은 있지만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 사용을 하지 않는다. 물론 필자도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것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대화만 가득한 메신저에 하루종일 넋을 놓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한다.

증권 열풍이 불던 시기에는 샐러리맨들이 너나없이 증권 동향을 체크하느라고 업무를 소홀히 해 사회적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스턴트메신저가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커뮤니티를 위해 메신저를 사용하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인스턴트메신저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회사는 인터넷 시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도둑질하는 갖가지 아이템들이 무수히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다. 이제 회사로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이것은 분명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장이 감시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었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에서 비윤리적이다. 더구나 동양적인 정서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극단적 방법은 비인간적이라고 해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무시간의 상당량을 개인적인 유희로 보낸다면 이 또한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진다고 본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또 하나 인스턴트 메신저는 중독성이 있어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 자신이 스스로 업무 윤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

인터넷 시대의 정보화 역기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실’로 남아 있다. ☞

